전법 일기

마음의 문 열리는 순간
부처님 자비는 살아난다

전법의 길은 때때로 뜻밖의 곳에서 열린다. 도량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며 법회도 아닌 곳. 그곳은 차갑고 무거운 철문이 닫혀 있는 교정시설이었다.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 나는 잠시 마음을 고르게 했다. '과연 소리 명상이 이곳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전법이란 가는 길을 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는 조용히 그곳의 문을 통과했다.

첫날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말보다도 시선이었다. 처음 인사를 어떻게 건네야 할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닉네임을 정하고 소통하기 시작했다. 범죄자나 수용자가 아닌, 하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마음의 벽을 여는 첫걸음이었다.

붓다볼을 손에 올리며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부처님, 이 울림이 그들의 가슴에 빛으로 들어가 참회의 길을 열어 주소서."

볼을 울리자 차갑던 공간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높은 벽과 차가운 바닥도 울림을 머금었다. 그 진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드러운 파동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명상이 몇 차례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표정과 숨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명상을 계속하다 보니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기다렸다면…. 후회가 됩니다. 명상을 하고 나니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힘이 생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멈춰 숨을 삼켰다. 죄의 무게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한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젊은 수용자도 명상이 깊어질수록 태도가 바뀌었다. 이름을 부르면 눈을 피하던 사람이 어느 날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붓다볼의 울림에 맞춰 천천히 호흡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구속된 것은 그들의 몸이었지만 붓다볼의 울림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자유가 피어나고 있었다.

전법은 거창한 설법이 아니다. 때로는 말보다 한 번의 울림, 한 번의 숨, 멈추어 앉아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깊은 깨달음을 만든다.

닫힌 문 바깥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가을이면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진다. 문 안과 바깥의 하늘은 다르지 않았다. 달라야 했던 것은 마음이었다.

붓다볼의 소리는 멀리 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 닿는다. 그 울림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다시 길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그곳이 곧 도량(道場)이다.

전법의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진다. 문이 열려 있든 닫혀 있든 소리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 부처님의 자비는 다시 살아난다.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㉑ 공존이라는 감각 ①

보이지 않는 신뢰가 사회 근간

신문을 읽고 아침 토론을 하는 시간에 불현듯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왜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인가요?"

자료를 찾아보니 OECD 국가 중 2003년부터 20년 넘게 압도적으로 자살률 1위라고 한다. 작년 한 해 1만4872명이 자살했다.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니 OECD 평균 10.7명보다 거의 3배에 가깝다. 더 슬픈 것은 아이들도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아무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약 40명이 36분 간격으로 세상을 등지는 나라, 매 교시 수업을 하고 나올 때마다 한 명씩 세상을 등진다. 최근 10년간은 경북 김천시 인구와 맞먹는 약 13만 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인 사망자 수와 같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인데, 그런 감각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초현실처럼 기괴하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한 나라가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불과하다. 남녀 각각 50명이 결혼해 다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00명이 2세대에 38명, 3세대 14명, 4세대 5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백 년 안에 눈앞에 벌어질 일들이다.

20년 이상 자살률 OECD 국가 1위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불과해

신뢰 없는 사회에 인재·혁신 없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죠. 다들 그 사람을 구해 주려고 애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자기가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또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야구장입니다. 앞사람들 때문에 뒷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괜찮은데, 키가 작은 사람은 통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나 상자를 가져다 줬더니, 어떤 사람은 그게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특별 서비스를 받았으니 따로 요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20대에 전문의가 되어 몇 억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칩시다. 남들 게임하고 놀 때 쉬는 시간까지 아껴 쓰며 공부해 얻은 결과니 다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자는 세금이 높아서, 가령 약 40%의 소득세를 낸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구요?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있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없을 때는 생사를 다투는 일이 됩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을까요? 의자가 없어도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 의자를 받치지 않으면 관람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자를 내어 주는 일이 역차별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바른 감각일까요?

어떤 사람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매달 엄청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가족은 억울함을 떠나 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회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사회에 발을 딛고 살고 싶을까요? 이런 곳에 과연 인재들이 모여들어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살률과 출산율은 이 세상의 공기와 같은 신뢰 지표입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또 좌절된 '비구니 호계위원'

11월 5일 열린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점심 공양 후 본회의가 속개됐지만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오랜 논의 끝에 상정된 '비구니 호계위원' 종헌 개정안이 단 1표 차로 부결되자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이날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그동안 함께 논의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결과가 큰 실망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비구니 스님들이 느꼈을 실망과 안타까움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발언이다.

이 논의는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그해 6월 제198회 임시회에서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한 달 뒤 원로회의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좌초됐다. 이어 8월 임시회에서 다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으나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한동안 멈췄던 논의는 올해 다시 본격화됐다.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안건이 이월되자,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전국을 돌며 원로의원 스님들과 종회의원 스님들을 찾아다녔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오해를 일일이 설명하며 진정한 승가공동체 실현을 요청했다.

이번 종헌 개정안은 '비구니 사건에 한해 비구니 위원이 초심호계에 참여한다'는 제한적 조항이다. 그간 호계원에서는 비구니 스님과 관련 사건을 비구 위원들이 심리하면서, 비구니의 수행 환경이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비구니 사건에 한해 문호를 열자는 비구니 스님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다. 59인의 종회의원 스님이 발의했음에도 찬성은 53표에 그쳤다. 종단 변화에 대한 저항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다시 종회의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끝은 아니다.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를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온 비구니 스님들의 인내와 원력이 꺾이지 않길 바란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